

철저한 검증 거친 전집출판의 모범

솔출판사 펴냄 「결정본 김지하 시선집」

詩에서는 마침표와 쉼표, 띄어쓰기조차도 말을 하고 울림을 전한다. 글자 하나의 오식이 작품의 의미를 굴절시키기도 한다. '목매었는데'가 '목매었는데'로, '해매다'가 '해마다'로, '네 목을'이 '네 몸을' 등으로 표기되어 시집에 수록된다면 작품의 진수를 맛보기는 애당초 난망한 일이다. 더욱이 시인의 사후에 그의 문학사적 무게가 인정되어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에 오른다면 시집 속의 오류는 해석상의 오류를 낳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한 한 예로써 주요한의 「불놀이」가 자주 거론된다. '잇음'의 평북방언의 연철인 '니즘'이 대부분의 연설로지에서는 '리듬', '이즘', '리즘' 등으로 표기돼 깊이있는 연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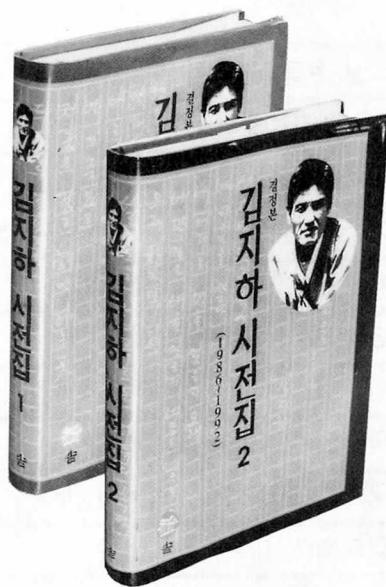
최근 솔출판사에서 펴낸 「결정본 김지하 시선집(1·2)」은 지금까지의 모든 出典을 꼼꼼히 對校한 결과 나타난 갖가지 오류들을 시인의 검증과 확인을 통해, 原本을 확정지어 주목을 끈다. 그리고 그 원본확정작업 과정에서 드러난 기존 판본의 오류들은 워낙 방대한데, 그 오류들이 발생케 된 원인까지를 일일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결정판」은 주목에 값한다. 이 책은 이왕에 나왔던 「김지하 시집」들을 모두 異本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앞으로 김지하 시의 正典 구실을 담당할 「결정판 김지하 시선집(1·2)」은 또한 원본확정의 문제가 비단 연구자뿐 아니라 편집자들도 더불어 떠맡아야 할 몫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출판계에 신선한 자극을 던지고 있다.

「결정본 김지하 시선집(1·2)」은 지금까지의 모든 出典을 꼼꼼히 對校한 결과 나타난 갖가지 오류들을 시인의 확인을 통해, 原本을 확정지어 주목을 끈다. 그 원본확정작업에서 드러난 기존 판본의 오류들은 워낙 방대한데, 그 오류들이 발생케 된 원인까지를 일일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결정본」은 주목에 값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러 판본의 오류는 김지하 시인의 투옥 당시 구명운동의 차원에서 펴낸 '정치적 판본'인 일본 한양사판 「김지하 전집」(76)에서 비롯되어 지금껏 답습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광출판사판 「김지하 서정시 전집」(89)에 실린 「절규」, 「길」 두 편은 그의 작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역시 한양사 판본이 시인의 초기시편들을 한얼문고版 「黃土」(70)를 기준으로 '황토 이전, 황토, 황토 이후'로 시대구분한 후, 창작과 비평사版 「타는 목마름으로」(82)에까지 적용됐는데, '황토 이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은 金之夏라는 필명으로 「목포문학」 제2호에 63년에 발표한 「저녁 이야기」 단 한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山亭里 日記」(61)로 잘못 알려진 김지하 씨의 '최초의 작품'이 밝혀진 것이다.

이 「결정본」은 초기시편들 중 투옥과 재투



옥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시인이 채 되고도 하기 전에 출판사 직원들이 '수거'해 간 작품들도 있음을 들쳐낸다. 「여울2」, 「책들—또는 '김수영조」, 「꼭두각시」, 「내일의 색시」, 「1971년 4월 한국」, 「낙서1」, 「낙서2」, 「成長」, 「달이 들며 나며」, 「騎馬像」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여러 시집들에서 보이는 수십 군데의 마침점, 쉼표, 오자, 탈자 등의 오류를 시인의 확인을 거쳐 바로잡았으며, 그 일람표가 권말의 「편집자 주」에 수록돼 있다.

이번 전집은 최근작까지를 망라해 시인의 작품세계의 전모를 보여준다. 특히 91년 5월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이 제목은 신문사의 편집과정에서 '죽음의 고향을 건너치워라'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를 발표해 「필화사태」로 비화됐는데, 당시

시인의 마음자리를 온전히 보여주는 시 「척분(滌焚)」은 '발굴'의 의미까지 지닌다. 91년 5월 17일자 신문에 쓴 「다수의 침묵, 그 의미를 알라」 말미에 실린 그 시를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물이면/혹/나 또한 잘못 갔으리/가 뉘우쳤으리/품안에 와 있으리/옛 휘파람 불어주리니, 모란 위 四更/첫이슬 받으라/수이/三途川 건너라."(「척분」 전문)

구만리장천을 떠도는 젊은 영혼이 극락세계로 가기를 빈 그 노래와 더불어, 폐간된 월간지 「다리」지에 발표했던 「역려(逆旅)」(89), 92년 「세계의 문학」 봄호에 실린 「선」, 「정신 병동에서」, 생명의 찬란한 깨침을 노래한 시편 「줄탁(啾啄)」(92) 등은 "김지하 시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고 저울하는 데 소중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이야기된다.

발표시간순으로 작품을 배열한 「결정본 김지하 시선집(1·2)」은 여덟 부로 구성돼 있다. 단 한편의 시 「저녁 이야기」가 그 첫번째 부이며, 「황토」, 「빈 산」, 「애린 1」, 「검은 산 하얀 방」, 「애린 2」, 「별발을 우러르며」, 「선」의 순서이다. 그밖에 화보, 自序, 편집자 일러두기, 시인의 略傳, 편집자 주, 정현종 시인의 跋文이 함께 수록돼 있다.

이 「결정본」에 이어, 판소리류의 長詩들을 따로 묶은 제3권이 조만간 출간된 것이며 이후 시인의 새로운 시들은 분량이 되는 대로 속간할 예정이라고 솔출판사 편집부장 정홍수씨는 전한다.

—김중식 기자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의식지향성

한국현상학회 편 / 8,500원

현상학연구 제6집으로 의식의 지향적 구조에 대한 분석의 문제를 다룬다. 현상 자체의 탐구에 앞서 의식의 분석을 중요과제로 삼으며, 무전제를 전제로 사고실험을 하는 것으로 생활세계의 구성을 의미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포스트모던적 조건

J.-F. 리오타르 지음 / 이현복 옮김 / 3,500원

지은이는 이 책에서 철학자로서는 처음으로 「포스트모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선진 정보사회적, 후기 산업사회적, 포스트모던적 관점에서 지식의 위상 및 사회 유대 이론을 해명하고 있다.

근대 철학사

R. 샤프트 지음 / 정영기, 최희봉 옮김 / 8,000원

17, 8 세기에 고전적 근대 철학의 핵심이자 주류를 형성한 일곱 사람, 즉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로크, 버클리, 흄, 칸트의 형이상학과 인식론에 대해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서술해 놓아 입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철학 에세이

안인희 외 지음 / 5,500원

교육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 및 강사 여섯 분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야기되는 다양한 교육현상들을 문화, 예술, 종교, 철학 등과 연관지어 에세이 형식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독자는 어려운 교육이론을 쉽고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사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